

# 투모로우바이투게더, 美 '빌보드 200' 1위... "꿈에 그리던 목표"

**K팝 그룹 중 다섯번째...계단식 성장의 모범사례**  
**데뷔앨범으로 140위 첫 기록...총 일곱장 진입**  
**메인 싱글차트 '핫100' 진입도 조심스레 예상**

차세대 K팝 간판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자체 처음이다.

5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지난달 27일 발매한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TEMPTATION)'이 11일자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이전까지 이 팀의 해당 차트 최고 성적은 지난해 5월 발매한 전작인 미니 4집 '미니소드 투 : 서스테이스 차일드(minisode 2: Thursday's Child)'로 거둔 4위였다.

K팝 아티스트가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건 방탄소년단(BTS)(여섯 번 정상), 슈퍼엠(SuperM),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스키즈)(2번 정상), 블랙핑크(BLACKPINK)에 이어 사상 다섯 번째다.

'빌보드 200'은 전통적 음반 판매량과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숫자,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숫자 등을 합산해 인기를 매긴다. 현지 팬들이 두터울수록 순위가 높게 나올 수 있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K팝 팬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차트에 진입하는 팀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대표주자다. 빌보드 차트와 제휴를 맺은 음악데이터 집계 회사 루미네이트(Luminate·옛 MRC 데이터)의 '2022년 연말 보고서'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지난해 미국 내 음반 판매량 10위에 들었다. '미니소드 투 : 서

스테이스 차일드'가 그 해 22만9000장이 팔려 10위에 올랐다. 톱10 중 K팝 팀은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Proof)'(44만2000장)로 3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뿐이었다.

빌보드가 음반 판매량 조사회사 루미네이트를 인용한 집계 따르면, '이름의 장: 템테이션'은 앨범이 발매되고 지난 2일까지 한 주 동안 미국에서 16만1500장 상당의 앨범이 판매됐다.

'빌보드 200' 순위는 전통적인 음반 판매량 점수에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TEA(track equivalent albums), 스트리밍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SEA(streaming equivalent albums)를 합산해 매긴다. '이름의 장: 템테이션' 피지컬 음반 판매량은 15만2000장, SEA 유닛은 9000장, TEA 유닛은 500장이다. 15만2000장의 판매량 중 98%는 CD 판매(14만8500장), 2%는 디지털 앨범 판매(3500장)였다.

'이름의 장: 템테이션' 음반 판매량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정규 10집 '미드나잇츠(Midnights)'가 2022년 11월 5일자 차트에서 114만장이 팔리며 1위로 데뷔한 이후 가장 큰 주간 판매량이다.

'이름의 장: 템테이션'은 대부분 한국어로 녹음됐고 일부 영어 가사가 포함돼 있다. 해당 앨범은 비영어권 앨범으로는 17번째로 1위를 차지했다고 빌보드는 전했다. 비영어권 1위 앨범 중 10개가 한국어 프로젝트(방탄

소년단 6개, 스트레이 키즈 2개, 슈퍼엠 1개, 투모로우바이엑스 1개)다.

4세대 보이 그룹 중에선 스트레이키즈에 이어 두 번째로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다만 데뷔 이후 '빌보드 200' 1위에 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스트레이키즈보다 1개월 빠르다. 2018년 3월 데뷔한 스트레이키즈는 데뷔 4년 만에 해당 차트 정상에 올랐고, 2019년 3월 데뷔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데뷔 3년11개월 만에 1위를 차지했다.

K팝 그룹 중 데뷔 이후 가장 빨리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팀은 슈퍼엠이다. 슈퍼엠은 지난 2019년 10월 셀프타이틀의 첫 미니앨범 '슈퍼엠'으로 데뷔 즉시 해당 차트 정상에 올랐다. 그런데 특수 케이스이긴 하다. 사이니(태민), 엑소(백현·카이), NCT(태용·마크·루카스·텐) 등 이미 데뷔한 SM 인기가 그룹 멤버들이 뭉친 팀이기 때문이다. 이중 루카스는 NCT의 유닛 'NCT U'의 멤버로 2018년 2월 '보스(BOSS)'로 데뷔, 실제 데뷔 기간으로 따지면 1년8개월 만에 해당 차트 정상에 올랐다.

무엇보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빌보드 200'에서 계단식 성장을 보여준 모범사례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이번 1위를 차지한 '이름의 장: 템테이션'까지 총 일곱 장의 앨범을 '빌보드 200'에 진입시켰다.

이들은 데뷔 앨범 '꿈의 장: 스타(STAR)'로 140위에 올랐고, 이후 미니 3집 '미니소드1 : 블루 아워(minisode1 : Blue Hour)'로 25위, 일본 정규 1집 '스틸 드림(STILL DREAMING)'으로 173위, 정규 2집 '혼돈의 장: 프리즈(FREEZE)'로 5위, 일본 첫 EP '카오틱 원더랜드(Chaotic Wonderland)'로 177위를 차지했다.

특히,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일본에서 발표한 음반을 제쳐 두면 '미니소드1 : 블루 아워'로 25위, '혼돈의 장: 프리즈'로 5위, '미니



소드2 : 서스테이스 차일드'로 4위, '이름의 장: 템테이션'으로 1위를 차지하며 자신들의 성적을 차근차근 끌어올렸다. 특히 세 개 앨범 연속 톱5의 기록을 쓰며 북미 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이름의 장: 템테이션'은 국내 한터차트 기준 초동(앨범 발매 첫 주 판매량) 218만889장의 기록을 세웠다. 역시 한터차트 기준 역대 K팝 음반 초동 4위의 기록이다.

'빌보드200'은 이제 K팝 그룹들에게 문턱이 낮아진 건 확실하다. 더 큰 관심사는 메인 싱글차트 '핫100'이다. 현지에서 팬덤 위주의 팀이 아닌 대중적인 풀뿌리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이름의 장: 템테이션'의 타이틀곡 '슈가 러시라이드(Sugar Rush Ride)'의 '핫100' 진입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선 98~100위권을 예상하고 있다. 앞서 빌보드 차트와 함께 세계 양대 팝차트로 통하는 영국 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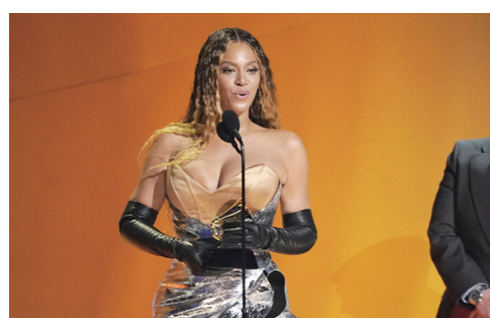
셜 싱글차트 톱100 진입은 어렵게 불발됐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꿈에 그리던 목표였는데 이뤄질 줄 몰랐다. 아침에 소식을 듣고 저희도 놀랐는데, 이런 값진 위치를 만들어 주신 우리 모아(MOA·팬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아분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저희를 응원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저희와 함께 앨범 준비를 하고 신경써 주신 방시혁PD님과 빅히트 및 하이브 스태프 여러분의 노력도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덕분에 '빌보드200' 1위 라는 성적을 거두게 됐다. 이런 자리에 맞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

## 비운세, 진정한 '그래미 여왕' 등극...역대 최다 누적수상 32개 신기록



미국 슈퍼 팝스타 비운세(Beyoncé·42)가 '그래미 어워즈'에서 새 기록을 쓰며 진정한 '그래미 여왕'으로 등극했다.

비운세는 6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타컴 아레나에서 열린 '제 65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4개 부문 수상을 추가하며 역대 '그래미 어워즈'에서 총 32개 트로피를 안았다.

기존 그래미 어워즈에서 가장 많은 상을 탄

기존 누적 31개 트로피 가져간 게오르크 솔티 기록 경신

주인공은 31번의 기록을 남긴 헝가리 출신 지휘자인 고(故) 게오르크 솔티(1912~1997)인데 솔티의 기록을 깬다.

사전 시상식에서 '브레이크 마이 솔(Break My Soul)'로 '베스트 댄스-일렉트로닉 뮤직 레코딩(best dance-electronic music recording)', '플라스틱 오프 더 소파(Plastic Off the Sofa)'로 '베스트 트래디셔널 R&B 퍼포먼스(best traditional R&B performance)'를 받았다.

본 시상식에선 '커프 잇(CUFF IT)'으로 '베스트 R&B 송 워너(Best R&B Song winner)', 정규 7집 '르네상스'로 '댄스-일렉트로닉 뮤직(dance-electric music)' 부문을 가져갔다.

비운세는 이번 시상식 전까지 28번 그래미 상을 받았다. 여성 아티스트 중에선 최다 수상

이었다. 28번의 수상 경력을 가진 프로듀서 켄시 존스와 동등이었는데 이번에 능가했다.

비운세는 '댄스-일렉트로닉 뮤직'을 받은 뒤 "이 모든 것을 만끽하겠다. 하나님에게도 감사하다. 돌아가신 삼촌 조니, 부모님, 남편(제이지), 집에서 TV를 보고 있을 세 아이, 그리고 쿼어 커뮤니티, 그래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1980년대 전후의 미국 클럽 문화·블랙 뮤직에 대한 존경을 담은 '르네상스'는 작년 나온 음반들 중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소수자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도 녹았다. 특히 자신에게 많은 영감을 준 성소수자 삼촌 조니에게 헌정했다.

비운세는 이번 시상식에서 정규 7집 '르네상스'와 수록곡 '브레이크 마이 솔' 등으로 총 9개 부문 후보로 지명됐다.

## 개봉 안 한 영화 본다...CGV 아카데미 기획전

전국 14개 CGV서 오는 11일~3월 21일 열려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오른 영화들을 정식 개봉 전에 볼 수 있게 됐다. 씨지

비(CGV)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제95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오른 영화 17편을 상영하는 '2023 아카데미 기획전'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타르' '더 웨일' '말없는 소녀'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이니세린의 밴스' '이오' '클로즈' 7편이 국내 관객과 처음 만난다. 이와 함께 '기예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 '더 배트맨' '바르도, 약간의 진실을 섞은 거짓된 연대기' '바빌론' '블랙 팬서:와칸다 포에버' '아바타: 물의 길' '에프터선' '엘비스' '정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탑건: 매버릭' 등 현재 상영 중이거나 극장 상영이 끝난 영화들도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CGV 강변·광주상무·대구아카데미·대전·명동역씨네라이브러리·서면·신촌아트레온·입구정·여의도·용산아이파크몰·인천·천안·청주·춘천 등 전국 14개 아트하우스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할인 이벤트도 있다. CGV는 많은 관객이 부담 없이 아카데미 후보작을 즐길 수 있게 이번 기획전 전용 3000원 할인 쿠폰을 5매 제공한다.

## 박재범, '드라이브'서 단독 MC 신고식... "혼 나간 듯"

매주 일요일 KBS 2TV 오후 10시55분 방송

가수 박재범의 단독 음악쇼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 5일 첫 방송된 KBS 2TV '더 시즌즈-박재범의 드라이브'에는 MC 박재범과 게스트 양희은, 크러쉬, 이찬혁, 이영지, 바밍타이거가 출연했다.

박재범은 "뮤직 토크쇼의 MC를 맡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많이 어수선하지만 처음이니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솔직한 소감으로 오프닝을 열었다. 이어 '좋아(JOAH)', '가나다라(GANADARA)', '온 에어(ON AIR)', '올 아이 워너 두(All I Wanna Do)', '맘마(MOMMAE)'까지 히트곡 메들리를 선보였다.

이날 박재범은 어디로 뭉치 모르는 신개념 '프리스타일' 진행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찬혁이 자신이 피쳐링한 곡 '불협화음'에서 '어느 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라는 가사를 부른 것에 대해 박재범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힙

합과 화해하자"고 돌발 제안을 해 이찬혁을 당황케 했다. 박재범은 힙합을 대표해 이찬혁과 악수를 나누는 이색적인 장면을 만들어 웃음을 자아냈다.

또 크러쉬의 앙코르 무대 중간에 난입하는 서프라이즈 진행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무대에 갑자기 뛰어오른 박재범은 크러쉬를 등에 업고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또 이영지의 즉석 랩에 프리스타일 랩으로 화답하거나 의자에서 비보잉 동작 프리즈를 선보이는 등 게스트들을 즐겁게 했다.

반면 데뷔 첫 단독 MC를 맡아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기도 했는데 그는 타투에 대한 의미를 묻는 양희은에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오늘 팬찮냐고 묻는 크러쉬에게 "혼이 나간 것 같다. 너무 긴장했다"며 속마음을 가감 없이 고백해 현장에서 격려의 박수를 받기도 했



다. 이날 양희은은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말'을 부르며 내공 깊은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안겼다. 이영지는 2021년 박재범이 피쳐링해 참여한 '낮밤' 무대를 최초로 공개, 바밍타이거는 방탄소년단(BTS) RM이 피쳐링에 참여한 화제를 모았던 '섹시느낌'을 박재범·이영지와 함께 재해석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55분 방송.

## 르세라핌, 日 오리콘 싱글랭킹 7번 1위

역주행하며 정상 탈환

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의 일본 데뷔 싱글이 오리콘 차트에서 역주행하며 정상을 탈환했다.

4일 자 오리콘 차트에 따르면, 르세라핌의 현지 데뷔 싱글 '피어리스(FEARLESS)'가 1461장 판매되면서 이를 연속 일간 싱글 랭킹 정상에 올랐다. 해당 랭킹에서 총 일곱 번의 1위를 차지했다.

소속사 쏘스뮤직은 "음반 판매량의 경우, 발매 첫 주 이후 수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르세라핌은 이례적으로 차트를 역주행해 눈길을 모은다"고 전했다.



장기 흥행에 시동을 건 이번 싱글은 역대 K팝 걸그룹 일본 데뷔 음반 초동(발매일 기준 일주일 동안의 음반 판매량) 1위에 올랐다. 4일 기준 누적 판매량 25만 장을 돌파했다.